이정인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회장상

이정인 / 한국예술종합학교

1. 수상 소감

작품이 그냥 포장으로써의 순수한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더더욱이 이번 결과에 놀랐다. 이렇게 까지 관심을 보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2. 수상 제품에 대한 소개(컵셉)

이번 작품은 설명서 자체가 제품으로써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구조는 종이접기라는 형식에서 시작되었다. 종이 한 장을 접어 제품으로의 기능과 설명서로써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제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제품은 패키지가 제품을 싸는 포장에서 벗어나 그 자체만으로도 제품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3. 준비 동기 및 경위

특별히 공모전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은 없었다.

계기는 다른 분야에서의 시작이었지만 완성된 제품의 모습이 포장으로써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출품하게 되었다.

4. 준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무언가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힘든 줄 모르고 진행했었는데 무엇보다 힘들었던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버리는 일이었다.

5. 현 포장디자인에 대한 견해

아직은 사람들에게 포장이라는 부분은 물건을 싸는 포장지로써의 기능을 하는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포장이라는 것이 단지 포장지로써만 존재하기보다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주고 거기에 좀더 폭넓은 기능들이 더해져서 더욱 즐겁고 확대된 의미로써의 포장의 모습이었으면 한다.

6. 향후 계획(앞으로의 진로)

여러 분야에서 즐거운을 찾기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 방면에서 즐거운 활동 을 하고 싶다.그러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있지 않을가 싶다.

우선은 졸업후 디자인관련분야에 취직해 실무를 쌓고자 준비하고 있다. ko